**이름**

박은경

* **블로그나 브런치,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 활동명과 아이디,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
* **제출 글 1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8oAtCKUs\_5\_All - Gifted \_지은1.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8oAtCKUs\_7\_All - Gifted \_지은1.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희망[希望], 그저 바라고 바란다. ‘희망’이란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한 희망은 우리와 항상 함께 존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그저 희망밖에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인가. 함께 숨 쉰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인 것인가.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아스팔트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시멘트

* **제출 글 2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8oAtCKUs\_16\_ㄴ= ㄴ.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8oAtCKUs\_18\_ㄴ= ㄴ.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너와 함께 하고픈 나의 바람. 온전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와. 이 말을 전할 수도, 마지막을 함께 할 수도 없지만. 나지막이 읊어본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잔디

* **작가인터뷰 - Q1.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인적사항 제외)**

저는 제 인생을 망치러 온 제 삶의 구원자입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2.**

글을 쓰실 때에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 **작가인터뷰 - Q2.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어쩌면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이 저에겐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 작은 단어들까지 생각나는 것은 다 기록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주위는 매일 각자의 시간대로 흘러가지만 그렇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 들여다보고 의미를 찾아주는 게 저에겐 친구와 노는 것 같아요. 평소에 꿈을 자주 꿔서 꿈이나 악몽까지도 기록하고 자주 들춰봐요. 악몽을 꾸면 그날의 ‘나’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글을 쓰는 동안의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순간이니까요, 내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3**

글을 쓰지 않고는 못 살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작가인터뷰 - Q3.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저는 우울이 밀려 저를 덮칠 때 글을 쓰지 않고는 못 살 것 같다고 느껴요. 질문 의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살아 숨 쉴 수 없겠다 생각했어요. 글 쓸 때는 제 자신과의 대화에서 조금 멀어져 제3자와 대화하고 그들의 대화를 적어나가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글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우울할 때 가끔 이용한 거죠. 저에게 우울은 그저 마음만 가라앉는 것이 아닌 저의 과거를 다시 짚어보고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억지로 우울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글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우울과 글은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단짝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해요.

* **작가인터뷰 - Q4. 맺음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

글이란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자신의 소감을 하나 얹는 것 이외엔. 자신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써놓고 이 또한 글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글이 아닐까요. 그저 자신의 글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글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